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공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ernacular House in Southeast Asia - In the Aspect of Commonality and Diversity -

주서령*

Ju, Seo-Ryeong

김민경**

Kim, Min-Kyoung

Abstract

Vernacular houses in Southeast Asia are basically post and beam structures raised on pillars, with gabled roofs. They were designed and built by the people themselves to meet specific needs, accommodating the values, economies and ways of life of cultures that produce them. Their forms and housing cultures are very various according to the country and the region. But based on the common history and culture, the vernacular houses in Southeast definitely have common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mmonality and diversity of the vernacular houses in Southeast Asia in the aspect of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e is the climate perspective, for which the analysis was made on the primar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limate, material, structure of the vernacular houses. The other one is the social-cultural perspective which try to find the religion, belief, life style and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 which controlled the forms of the housing under the surface. As a result, this study summarise and find the outstanding and unique meaning and definition of the vernacular houses in Southeast Asia.

Keywords : Southeast Asia, Vernacular House, Commonality, Diversity

주요어 : 동남아시아, 토속주거, 공통성, 다양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남아시아¹⁾는 국내에는 매우 생소한 지역적 대상임에 분명하다. 동남아시아 토속주거(vernacular house)라 하면 목재를 이용한 고상식 주거이며, 덥고 습한 열대성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개방적인 형태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거의 정의는 상당히 기후결정론적인 관점이다.

토속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기후 결정론적 관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토속주거는 복잡하고 단일론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Rapport(1969)도 토속주거에 대한 수많은 다양성과 이에 영향을 준 요소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나 기후, 재료, 기술 등은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단지

수정요소(modifying factor)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주거를 포괄적 범위의 사회문화요소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토속주거를 기술하고 있다. Oliver(2006) 또한 토속주거를 단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하며, 다학제적인 접근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된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학문적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그들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토속주거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다양한 동남아시아 토속주거를 그 밑에 기초하고 있는 배경적 사상과 주거유형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형태를 모두 총망라하여 정리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오랜 시간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한 동남아시아

*정회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정회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09-0064763).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킨 것임.

1)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의 아세안(ASEAN) 회원국가 10나라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면해 있는 대륙부 동남아시아(Mainland Southeast Asia)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와 도서부 동남아시아(Insular 또는 Island Southeast Asia)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병욱(2006). 동남아시아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6.

내의 지역적 연구와 통합적 연구를 번갈아가며 상호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적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시작된 지역적 연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소 성급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전체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성립되어야만 지역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현재까지 진행된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 시도되었다.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두고 그 지역의 토속주거를 종합하자는 연구의 도는 다분히 동남아시아라는 지리적, 풍토적, 기후적, 역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라고 명명할 수 있는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인종, 종교, 지역 그리고 시대에 따라 수많은 주거형태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주거형태와 문화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선행된 문헌고찰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파악되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파악되는 세부적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속주거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관점들을 종합하면 주거의 물리적 형태의 일차적 특성을 결정짓는 기후론적 관점과 그 물리적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적용하여, 기후론적 관점으로는 기후, 지역, 재료, 구조, 기술 등의 요소와 주거와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형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화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종교, 가족관계, 사회조직, 영역성, 생활양식 등과 주거와의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요 분석의 대상인 문헌은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서와 동남아시아의 공통성 및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 및 주거연구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국가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거에 대한 연구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²⁾.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문헌연구들은 지역별로 동등하지 않고,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일률적 방법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성질이나 동일한 측면을 취급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3. 분석대상 주요 문헌의 개요

본 연구진행이나 또는 다른 주요 참고문헌에 지대한 영향을 준 연구는 Waterson(1997)의 ‘The Living House’이다.

인류학자인 저자는 주로 도서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와 주거와의 긴밀한

관련성(House Society)을 찾고자 하였다. 즉 주거의 건축과 공간 사용에는 거주자의 생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통해 주거의 형태와 건축방식이 결정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분야는 인류학과 건축학에서도 배제되어왔던 분야라고 기술하며, 사회제도, 가족관계, 성의 상징, 우주적 철학, 거주자의 생활, 종교와 같은 생활관습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주거형태와 문화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 사례가 도서부에 제한되어 동남아시아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다소의 제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주거의 물리적 형태, 특히 평면이나 공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Durmacay(1990)의 ‘The House in South-East Asia’는 각 지역 주거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도식화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기후, 철학적 믿음, 상징성을 배경으로 하여 동남아시아의 주택의 기원 및 지역에 따른 건축방법, 건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각 지역의 주거에 대한 도식화를 통하여 건물의 구축방식, 구조, 지붕, 일부 평면구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 제시하였다. 다루고 있는 지역도 대륙부, 도서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소수 대표 분석에 그치고 있다. 각 지역 주거에 대한 세부자료와의 비교고찰을 진행하면서, 이 책 자료의 일반성과 대표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되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는 북유럽 동남아시아 연구회(Nordic 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n Studies)에서 1996년 오슬로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의 자료를 모아 출간한 ‘The House in Southeast Asia’이다. 인류학자(Stephen Sparkes, Signe Howell 등)들의 주관 하에 주도된 학술대회이지만 ‘사람’과 ‘주거’의 상관성 그리고 집을 ‘사회적 조직(social organization)’의 결과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는 다학제적인 학자들이 모여 개별적인 관점에 따라 진행된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집결하였다. 그들은 각기 제한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2) 분석대상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출간된 책으로 제한되었음을 밝힌다. 주요 분석대상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Ariffin, S. I. (2001). Order in Traditional Malay House form. Oxford Brookes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2. Chaichongrak, R. (2002). The Thai House: History And Evolution. Weatherhill.
3. Chen, V. F. (2007).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05: Architecture. Didier Millet.
4. Dumarcçay, J. (1987). The Hou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5. Lim, J. Y. (1987). The Malay House. Institute Masyarakat.
6. Schefold, R. & Domenig, G. & Nas, P. (Eds.). (2003). Indonesian houses. KITLV Press Leiden.
7. Sparkes, S. & Howell, S. (Eds.). (2003). The House in Southeast Asia. Routledge Curzon.
8. Waterson, R. (1997). The Living House. Oxford University Press.

또는 개별 주거가 갖는 상징성, 의미, 여성의 역할,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기 매우 제한된 지역과 특수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주거에 내재된 거주자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기에 좋은 연구결과들이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주거를 기술하는 세부참고문헌들을 고찰하였는데,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동등한 정보의 탐색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주거의 국가별 비교 고찰보다는 공통성 및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특성 파악에 주력하여 진행하였다.

4. 토속주거의 의미와 정의

Rapport(1969)는 토속주거를 대중의 삶(popular living)과 문화로부터 형성되는 민속전통(folk tradition)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토속주거의 형태는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관리적인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까지도 만족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적용되어 오면서(adjusted) 형성된 결과물이며,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거주자의 직접적 참여(owner participation)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Oliver(1996; 2006)는 토속주거는 특정 지역의 환경적 맥락과 사용가능한 재료와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속주거는 거주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전통기술을 사용하여 지어지는 형태이고, 이 형태는 오랜 시간 동안 거주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변화에 맞추어, 변형과 적응(modification and adaptation)된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종종 '전통(traditional)'과 '토속(vernacular)' 개념사이에 혼돈이 발생한다. Ariffin(2001)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전통은 과거의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지칭하지만 토속은 시간과의 관련성보다는 장소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한편 Bruskill(2000)은 '토속건축'을 'polite architecture'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건물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미적 디자인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건축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지어지는 'polite architecture'와 대비하여 토속주거는 삶을 그대로 담아주는 생활공간인 것이다. 이렇듯 토속주거를 기술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토속주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거주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기술이 아닌 그 공동체에서 가능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대중적인 주택(popular living)이며, 이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되어오고, 변형되어온 건물로 정의할 수 있다.

II. 동남아시아 문명의 공통적 배경

1. 일반적 배경

사전적 정의³⁾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북위 28°30'에서

남위 11°까지, 동경 92°20'에서 135°50'까지의 지역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열대몬순에 따른 습윤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열대우림형, 사바나형, 열대고지형, 그리고 광범위한 열대몬순형 등의 갖가지 풍토를 이루고 있다.

박장식(2000)에 의하면 동남아의 북부에는 산지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차 고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구릉과 평원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주요한 지형적 특징이다. 이곳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위치해 있고 더욱 아래로 내려가면, 적도 아래의 바다에 흩어져 산재하는 도서부가 있다. 도서부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가 있다. 산지, 구릉, 평원, 섬으로 변화하는 지형구역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생태구역(산지부, 평원부, 도서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적으로 대륙부는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별되어 반복되는 몬순(monsoon)기후대이고, 도서부는 습윤 열대기후로서, 대륙부와는 달리 연중 강우량이 높다. 물론 대륙부의 경우도 지형의 구조에 따라 기후의 패턴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동남아를 대륙부와 도서부로 구분하는 것은 그 생태적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는 복잡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이 영위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사회는 극히 원시적인 단계로부터 근대국가를 이룩한 주요 민족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특성에 대하여 최병욱(2006)은 이 지역의 공통적 특성을 한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화의 양상이 복잡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인도(BC 1-2세기경부터), 중국(BC 2-4세기경부터)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다. 동남아시아의 전통 문화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적당히 변용되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변용과정을 겪었다. 또한 이 지역은 무역풍대로 무역선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어떤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면 그 권력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가 되었다. 지배의 대상은 지배 영역에 존재하는 인력이지 땅이 아니었다. 사회는 농사를 기반으로 하여 협동노동, 모계제가 발전하였다. 또한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서양 세력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민지 역사는 각국의 영토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2. 공통 문명의 존재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으로써 공동 문명권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고'(bronze drum)가 베트남 동선(Dong Son)에서 대량 발견되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인도와는 상관없는 독자적 문화권이라는 주장이다.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유적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 '동고(bronze drum)'로써 주거의 형태적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3) www.encyber.com

것은 기원전 600-400년과 기원후 100년 사이의 시기에 동고로써 동선문명(Dong Son Culture)의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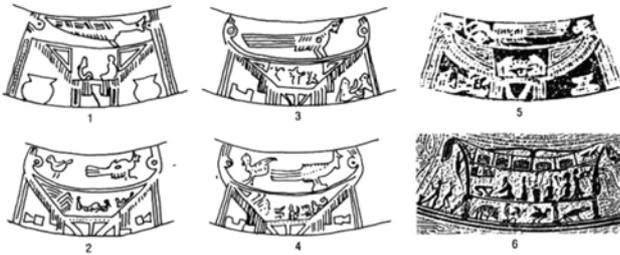


그림 1. 동고에 나타난 주택의 형상
출처: Waterson, 1997: 19

동고에는 당시 주택의 정면으로 추측되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사람은 기둥위에 올린 실내에 앉아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양 끝부분이 솟아올라 강조된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지와 주택 바닥의 사이에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거나 동물이 생활하는 모습이 파악된다(최병욱, 2006: 22-23; Waterson, 1997: 18; Schefold, 2003: 25-30; Dumarcçay, 1987:2-3)

3. 종교적 특성

종교적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는 유교, 대승 불교, 소승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지구상의 주요 종교가 모두 존재한다. 대륙부에 위치한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이 강하고, 대승불교가 보편적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대륙부 4개국은 불교 국가적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들 국가에서 불교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도서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슬람교가 국교이면서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서도 이슬람교 인구가 절대적이며, 필리핀은 이슬람교가 다수인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스페인의 영향으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의 비중이 절대적이다(최병욱, 2006).

하지만 동남아시아에는 토착신앙에 기반을 둔 주술과 정령 숭배적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 강, 숲, 산 등에 거거하는 자연의 정령과 초자연적 힘을 갖는 장소나 사물을 숭배한다. 주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는데, 주택 최상부로부터, 지붕(Bumbung Rumah=roof), 거주공간(Badan Rumah=body), 기초(Bawah Rumah=underneath)라는 위계는 각각 신 아래 인간, 그 아래 동물이 산다는 종교적 위계와 상징성을 내포한다고 설명되고 있다(Widodo, 2004: 3; Ariffin, 2001: 54, Schefold, 2003: 23). 이러한 형태는 동고의 조각을 통해 파악한 위계와 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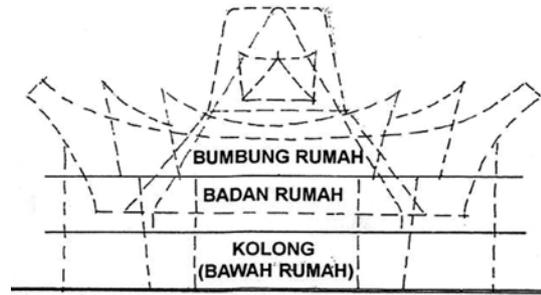


그림 2. 동남아시아 주택유형의 위계도
출처: KHU+UM Southeast Asia Housing Program 수업자료, lecturer by prof. Ezrin, University of Malaya, 2009

4. 공통언어권

동남아시아는 350종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각 국가의 지역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오스트로네시안 언어권(Austronesian Language Family)⁴⁾으로 공통 언어적 기원을 가진 지역이다. 공동 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언어이므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화적 공통성에 힘을 실어준다.

Waterson(1997)은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와 멜라네시아(Melanesia)의 초기 건축물이 파일기초(pile foundation)위에 올려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섬인데,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해상 이동의 용이함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그림 3. 오스트로네시안 언어권의 영역
출처: Waterson, 1997: 13

4) 오스트로네시안 언어권은 동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마다카스카(Madagascar) 섬과 서쪽으로는 태평양의 이스터섬(Easter Island)에 이르는 지역으로, 도서부 동남아시아 전체, 마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말레이반도 남부, 베트남 남부, 타이완, 뉴 기니아 연안부에 위치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이 광대한 지역이 프로토-오스트로네시안(Proto-Austronesian)이라는 같은 어원을 가진다는 주장은 Peter Bellwood(1978)라는 언어학자에 의한 처음 주장되었고, 지역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생활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되고 있다(Waterson, 1997: 11-14).

III. 기후론적 관점에서 본 공통성과 다양성

1. 파일기초의 고상식 주거

동남아시아 주거의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은 파일 기초위에 바닥이 들려 올려진 고상식(pile-built) 주거라는 것이다. 고상식 주거는 열대지방의 습기나 해충, 우기때 물의 범람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된 결과이다. 이러한 고상식 주거는 자연풍을 유입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온다습한 이 지역 풍토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모든 주택이 파일기초를 사용한 고상식은 아니다. 예외 사례로는 발리(Bali)같은 경우 대지건축(ground-built)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 북부 태국의 고산지대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흙 기단 위에 집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의 특징적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문헌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인 고상식 건축은 열대기후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거공간을 받치고 있는 파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지역이 수마트라라 할 수 있다. Waterso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아체(Aceh)지역의 경우 파일기초 건축 구조가 수마트라(Sumatra)의 잦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크다. 니아스(Nias)섬 남부의 경우 지름 1m도 넘는 거대한 아이언우드(ironwood)를 사용한 수마트라의 파일 기둥들은 수직과 대각선 방향으로 구축되어 지진에 대한 추가적인 저항력을 제공하고 전체 구조에 안정성을 더하고 있다⁵⁾.



4-A. North Nias house 4-B. South Nias House

그림 4. 지진 저항력을 보강한 인도네시아 파일 사례
출처: Waterson, 1997: 82, 107

고상식주거는 주택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파일이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를 가졌다면 보르네오 지역의 파일은 보안이 상징된 사례이다. 레장강(Rejang River) 주변 롱 하우스(long house)는 20-40ft 높이의 기둥 위에 자리하였다. 몇

5) 한 지역전문가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는 2004년 쓰나미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몇은 500ft가 넘는 높이였다고 한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때로는 주변에 울타리나, 뾰뾰한 줄기를 가진 나무를 심어 안전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방어를 위한 필요성이 약해지면서 거의 사라졌다(Schefold, 2003).



그림 5. 안전의 상징으로 사용된 긴 기둥
북부 보르네오, 'Town of Kenowit, Rejang'
출처: Schefold, 2003: 304

2. 통풍이 극대화된 구조

동남아시아의 고상식 주거는 주택 전체가 통풍이 극대화된 구조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파일기초의 사용으로 거주공간 아래에 찬 공기를 흐르게 하고, 맞바람을 불도록 전면 개방이 가능한 창을 마주보게 배치하며, 경사가 가파른 박공지붕은 뜯지붕으로 구성되어 거주공간 상부의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몬순 기후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진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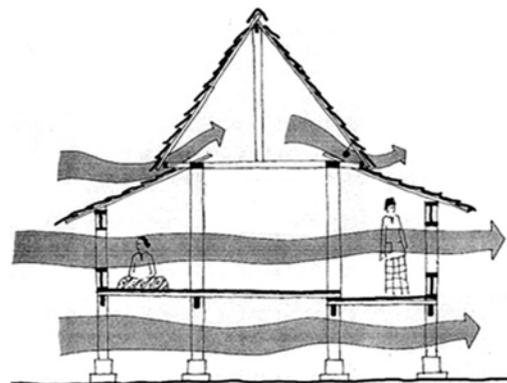


그림 6. 말레이 주택의 통풍구조
출처: Lim, 1991: 71

Waterson(1997)의 연구에서 특히 부기스(Bugis), 아체(Aceh), 말레이(Malay) 지역과 같이 덥고 습도가 높은 해안지방에서는 사이사이 틈이 있는 마루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길다란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마루판 사이의 공간을 통해 아래의 찬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한다.

바닥재의 사용뿐 아니라 벽재의 사용에서도 최대한의 환기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적용된다. 벽은 동남아시아 주거의 조형요소 중 가장 비중이 작은 요소로 외·내부

벽 모두 조립식으로 구성되는데 야자 또는 대나무를 쪼개어 짜거나 목재를 결합하고 개구부도 미리 완성하여 보와 기둥에 부착되는 형태이다. 내부벽은 칸막이의 기능을 하지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만 유지되는데, 이는 환기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벽을 구성하는 재료 사이에는 틈이 있어 공기의 순환을 통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레이시아를 예를 들면 실내 칸막이벽은 상부가 개방되어 있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붕에도 적용되어 지붕의 박공부를 투각하여 환기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의 기후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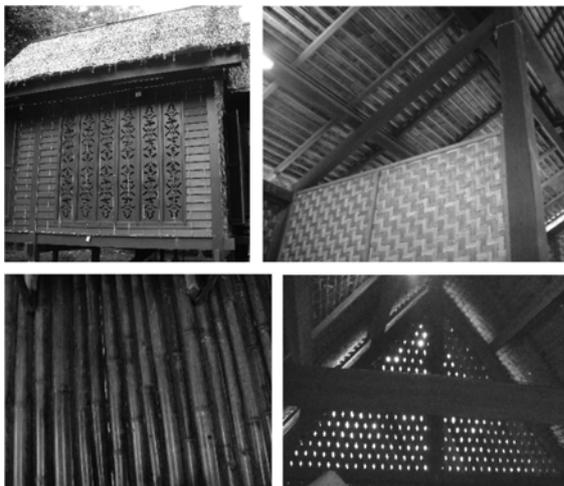


그림 7. 말레이주택 각부의 통풍 구조 (좌측 상단부터 외벽, 내벽, 바닥, 박공부)

3. 목조가구식 구조

동남아시아 건물의 건축형태는 기둥-보 공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물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결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다 토속적인 건물의 경우 대나무 같은 부재를 사용하여 틀을 만들고, 부재를 등나무줄기(rattan)로 서로 묶는 방식을 취한다. Schefold(2003)는 인도네시아 군도 서부에서는 장부잇기 방식을 취하며, 부재를 묶는 방식은 동부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기초가 되는 기둥은 지면에 박거나 주춧돌 위에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초구조 위에 거주공간이 없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지붕은 독자적인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 위에 얹히고 처마를 길게 하여 주거공간을 감싸는 방식으로 위치된다. 동남아시아의 주택은 Reid(1988)가 ‘가벼운 집’이라고 일컬을 만큼 경량구조이며, 이러한 구조와 단열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주택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

이러한 못을 사용하지 않는 목조가구식 구조는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장소에 재조립할 수 있다. 아체(Aceh)에서는 거주지를 다른 마을로 옮길 때처럼, 이동이 필요한 경우 분리

가 가능한 몇 가지만 떼어내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도와 통째로 옮길 수도 있다(Watsonson, 1997).



그림 8. 주택을 들어 옮기는 모습
출처: Watsonson, 1997: 80

IV.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공통성과 다양성

1. 지붕의 상징성

동남아시아 주거에서 지붕은 기본적으로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다. 빗물을 머금지 않는 재료의 사용과 가파른 경사 지붕을 통해 빗물을 속히 흐르게 하여 열대성 폭우와 긴 우기(雨季)를 견디내기 위한 대표적 기후적 대응 장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붕은 너무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후론적 관점만으로 지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우세한 건축적 표현 요소이며, 지붕의 과장된 형태를 통하여 거주자의 지위 및 그 건물의 역할에 대한 상징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는 기후론적 관점의 기능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지붕의 상징성은 크기, 장식, 과장된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동남아시아 지붕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는 안장형 지붕(saddle-backed roof)이다. 안장형 지붕은 용마루의 가운데 부분보다 끝부분을 치켜 올린 형태<그림 9-C>이며 이것이 안장형 지붕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다. 안장형 지붕은 박공의 끝이 좀 더 과장되고 바깥을 향하게 경사를 준 지붕<그림 9-A>, 용마루의 끝을 과장되게 뽀족하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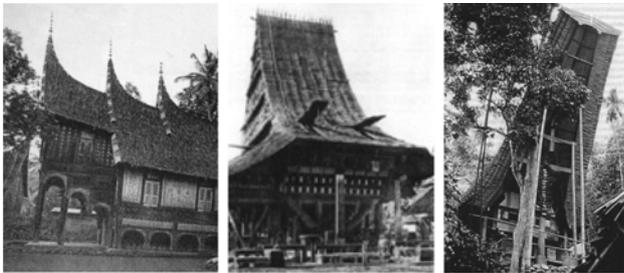
그림 9. 안장모양의 지붕
출처: Watsonson 1990: 21

하여 그 끝을 장식한 지붕<그림 9-B>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발견된다.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사례는 양 끝부분이 과장되게 치솟은 안장모양지붕이 여러 층으로 되어 하부 층이 상부 층의 아래에 들어가 일부 겹쳐지면서 여러 겹의 지붕으로 구성된 미낭카바우(Minangkabau) 양식이다. 각각의 층은 단독으로 된 지붕을 가지기도 하지만 각 층이 연결된 형태일 경우 미낭카바우 양식에서 지붕은 다른 지붕에 들어가 맞물린 형태를 보인다<그림 10-A>.

또한, 건물 전체 중 지붕의 비례가 과장되게 큰 형태로 니아스(Nias)의 지붕을 예로 들 수 있다. Dumarççay(1987)의 연구에 따르면 지붕은 집의 특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써 족장의 집의 경우 지붕은 6-8 m 정도의 거대한 높이로 구성되어 지붕의 크기로 거주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사례이다<그림 10-B>.

토라자(Toraja) 양식은 지붕 끝이 과장되게 튀어나면서 또한 과장되게 솟아오른 형태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토라자 지역 주택의 특징으로 이러한 거대한 돌출 지붕은 외부 기둥에 의해 지지되며 주택 내부는 사각형 구조로 내부에 서까래를 지지하는 기둥으로 채워져 있다. 거대한 돌출 지붕은 기능적인 용도보다는 건물의 역할 또는 거주자의 지위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Dumarççay, 1987)<그림 10-C>.



10-A. Minangkabau 10-B. South Nias 10-C. Toraja

그림 10. 상징성을 내포한 형태의 지붕
출처: Waterson 1997: 77, 107/Sparkes 2003: 44

지붕장식에서도 상징성은 나타난다. 지붕의 끝부분 장식(gable horn)에는 뿔이 있는 버팔로의 머리를 얹기도 하며, 목재를 X형태로 교차하여 장식하거나, 나가(naga) 또는 거대한 물뱀의 형태로 목재를 조각하여 얹었다.

Waterson(1997)은 버팔로의 뿔은 공격과 방어를 상징하며 무기로서의 기능을 하여 당시 이러한 장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집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나가(naga)와 물뱀은 토착신앙적으로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보호적 상징으로써 이러한 장식이 사용된 Waterson(1997)의 추측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버팔로는 재물으로써 부를 상징하였고 종교의식에 공물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버팔로의 뿔과 유사한 장식은 해당 주택에 기거하는 사람의 계층 또는 지위를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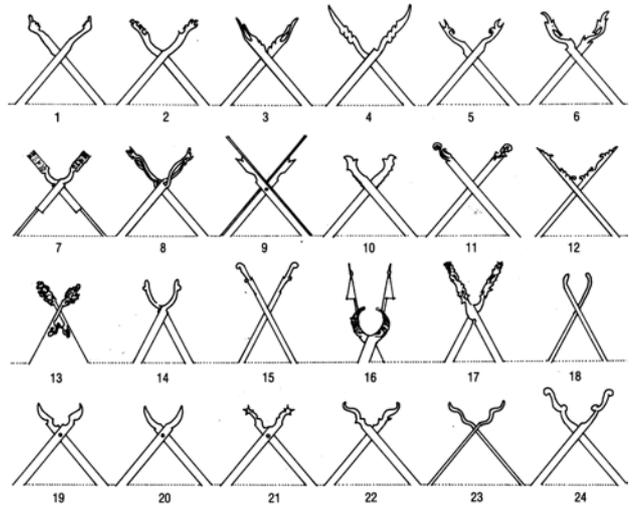


그림 11. 동남아시아 gable horns의 도식화
출처: Waterson 1997: 11⁶⁾

영하며, 이러한 장식을 통해 건물 자체의 중요성이 상징되기도 하였다.

한편 Manguin(1990)은 동남아시아 문화에서 주택은 배로 상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동남아시아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주장된다(Adams 1974; Barraud 1979, 1983; Kana 1980, 1983; Mckinon 1984; Yoshida 1980, Cunningham 1964, Waterson 1997, Vroklage, 1936).

Waterso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배는 죽은 뒤 사후세계로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 모양의 관과 무덤을 사용하고, 이것을 배라고 부른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도서부에서 끝부분이 뾰족한 지붕을 ‘배 지붕(ship roof)’라고 칭했다라고 한다(Vroklage, 1936). 따



그림 12. 남부 타이완의 야미(Yami)족의 배-지붕의 모티브
출처: Waterson 1990: 22

6) 1-6: Kalimantan, 7: central Sulawesi, 8: Southeast Sulawesi, 9-10: South Sulawesi, 11: Flores, 12: Singapore, 13: Riau, 14: West Sumatra, 15: West Java, 16: Tanimbar, 17-18: Roti, 19-22: Laos, 23: Thailand, 24: Kampuchea

라서 안장모양 때로는 배를 상징하는 지붕은 당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토착신앙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배를 상징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주술적 건축행위

동남아시아에는 토착신앙적인 요소가 건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주택의 부지 선정에서 토착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을주민과 함께 집주인, 목수와 함께 보모(bomah)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술사가 건축에 참여하는데, 부지 선정에 있어 보모의 역할이 크다. 집자리가 선택되면 보모가 향을 피우고 선정된 땅에 대해 축복하는 것으로 의식이 시작된다. 등나무 줄기를 말레이어로 집의 안주인을 의미하는 이부 루마(ibu rumah) 양쪽 팔길로 자르고 이와 같은 길이의 막대를 함께 만들어 등나무 줄기를 막대에 묶고 보모는 향을 다시 피우고 기도를 암송한다. 이후 등나무 줄기가 묶인 막대를 부지에 심고 물을 담은 양동이 밑에 접시를 두고 막대기 옆에 둔다. 이웃과 함께 보모와 안주인이 기도를 암송한 뒤 다음날에 다시 부지 선정을 위한 의식을 행한다. 다음날 아침 안주인이 등나무 줄기와 막대기의 길이, 물을 확인하는데, 등나무 줄기와 막대기가 길어졌거나 양동이의 물이 접시에 넘치면 이때 부지가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의식을 통하여 집의 영혼(semangat rumah)이 기둥 안에 기거한다고 믿으며 집의 주 기둥인 티앙 세리(tiang seri)가 세워질 정확한 자리가 선정된 것이다(Chen, 1998). 이 티앙 세리 상부에는 좋지 않은 기운과 영혼을 의미하는 검정, 삶과 용기를 의미하는 빨강, 청결,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천조각을 순서대로 꽂아두어 나쁜 기운을 막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림 13. 부지선정의 주술적 행위과정
출처: Chen, 2007: 16-17

3. 신인동형론적 사고

동남아시아 주거에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즉 주택의 형태, 질서 등

을 인체의 질서에 근거한다는 것으로, 우선은 주택의 크기를 결정하는 치수의 기본단위를 안주인의 양팔을 벌린 길이를 데파, 팔꿈치 길이를 하스타에 두고 있다<그림 14>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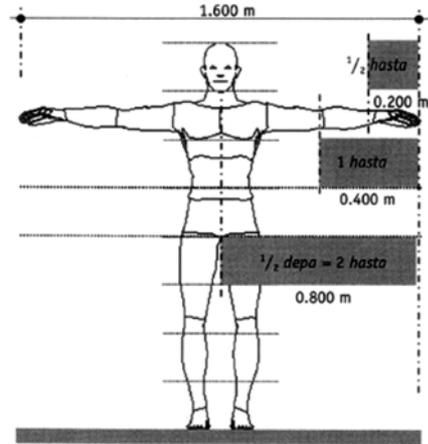


그림 14. 공간측정 기준인 신체치수 단위
출처: Ariffin, 2001: 67

Ariffin(2001)의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바닥갈래의 크기, 개구부의 폭과 높이, 세람비의 크기 등의 크기 등이 인체치수와 인간 활동의 범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입면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지붕부는 머리, 거주공간 부분은 몸, 파일부분은 다리에 비유된다. 이러한 비유는 앞서 살펴본 종교적 위계와 같은 맥락이며, 인체 비유적인 요소는 수평적으로도 나타나, 주택의 정면부인 세람비(serambi)를 얼굴로, 후면부에 위치한 부엌인 다푸르(dapur)를 둔부로 칭하는데 이는 부엌에서 뒤쪽으로 음식쓰레기와 같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적 행위가 배변행위에 비유되기도 한다(Ariffin, 2001).

또 다른 신체 의인적 사례는 Waterson(1997)의 연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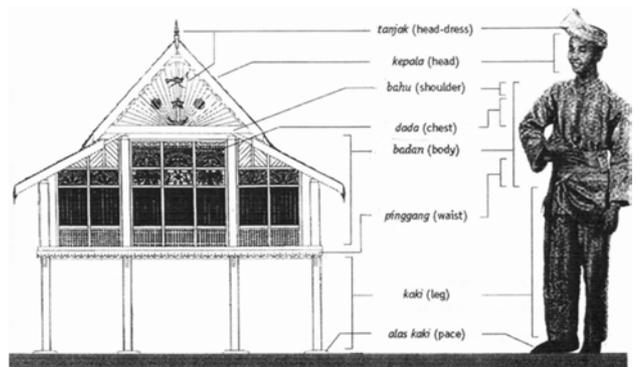


그림 15. 주택의 입면과 신체의 상징적 비유
출처: Ariffin, 2001: 67

7) 평균 데파 길이는 1.6 m이며 1데파는 4하스타이다. 즉, 1하스타는 0.4 m의 길이를 가진다.

통해 파악된다. 인도네시아의 아토니(Atoni)족은 용마루의 이름을 머리(crania), 벽기둥은 발(feet)이라고 부르며 어떤 아토니 주택은 팔(arms), 상투(top-knots), 귀걸이(ear-rings)로 주택 각부의 명을 의인화하여 칭한다. 특히 주거공간 내에 앞서 살펴본 티앙 세리(tiang seri)와 같이 주술적 상징성을 가지는 기둥이 의인화 되어 나타나는데, 에마(Ema) 주택에서는 동쪽에 있는 남성기둥과 서쪽의 여성기둥(ri ulun mane/ri ulune ine)으로 불리는 2개의 기둥이 그 예이며, 인도네시아 토라자(Toraja)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차지했던 가문의 주택에 다른 집과는 달리 비구조적인 요소로써 가문의 지위를 상징하는 배꼽기둥(áriri posi)이 중앙에 자리하여 배꼽이 달린 집(banua diposi)라고 불리는 의인화사례가 등장한다.

4. 공간의 성별구분

동남아시아에서 모계와 부계친족제도 발전되지만, 양면제가 가장 폭넓게 퍼져있는 친족형태로,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말레이시아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루마 이부(rumah ibu)’는 ‘엄마의 집’을 뜻하고 있으며, 주택크기의 기본도 엄마의 인체 치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공간 사용상에 있어서도, 성별 공간 분리가 나타나는데, Sparkes(2003)는 주거는 성에 의해 명백하게 영역이 구분되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연령이나 노동의 분화에 의해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Waterson(1997)은 순다(Sunda, West Java)의 경우 주택과 부속건물인 곡식창고의 관리적 측면에서 곡식창고가 여성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탁(Batak) 지역에서 독특하게 남성이 곡식창고와 관련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Sparkes, 2003).

이러한 성별에 따른 공간의 구분은 종교제례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사례로, 동부 인도네시아의 에마(Ema)주택은 주거 내부공간이 바닥위에 설치된 보에 의해서 남성(great platform)공간과 여성(small platform)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남성 플랫폼 면적이 더 넓은데, 이는 남성이 종교제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공간이 종교제례를 위한 행사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더 넓은 면적을 가진다고 판단되고, 종교 제례적인 물건들의 대부분은 남성기둥(male post)에 보관되고, 직물과 옷 등 여성적인 물건들은 여성공간에 보관한다. 공간사용에 대한 구분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5>와 같다(Waterson, 1997).

주택 부재에서도 성별 구분현상은 발견된다. 동부 인도네시아 린디(Rindi)주택은 주택의 주요 부재가 남성과 여성으로 상징되어 쌍을 이루어 구성되고, 주택 내부는 여성의 공간, 외부는 남성의 공간으로 상반된 대립을 가지고 포함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쉰바(Sumba)주택에서는 오른쪽이 남성부분, 왼쪽이 여성부분으로 위치에 따른 성별구분 사례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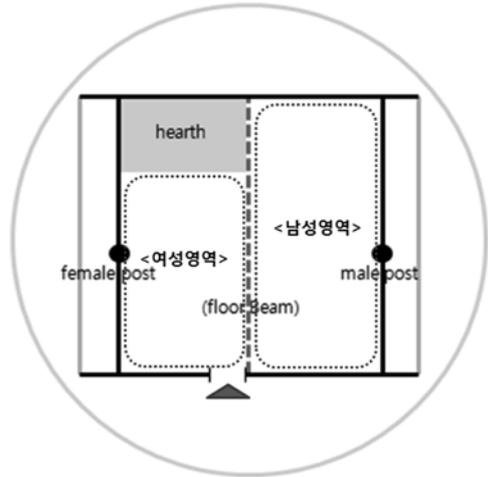


그림 16. 에마(Ema) 주택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Waterson(1997)은 성별에 따른 공간분리의 원인을 생활 속에서 나타난 변화에서 찾고 있다. 초기 동남아시아 주거들은 화로가 집의 중앙에 위치하였는데, 화재의 위험과 연기를 피하기 위하여 화로는 중앙에서 격리되거나 주택의 뒷부분으로 이동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화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화로의 위치 이동과 함께 여성의 영역도 함께 이동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점점 남성의 공간은 앞쪽, 여성의 공간은 뒤쪽으로 자리하는 변화가 진행된 결과 남녀의 공간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5. 공간의 영역성

토속주거 공간은 단일공간을 용도에 맞게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작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주거는 다소 큰 규모의 주택은 공간이 용도별로 분화되고, 각각의 채가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공간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명확한데, 손님접대, 사교, 가족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현관역할을 하는 안정(anjung)과 주로 남자손님을 접대하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인 세람비(serambi)는 공적 영역에 해당되며, 주택의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취침, 기도, 가사일, 가족활동의 장소인 루마 이부(rumah ibu)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며 여자들의 사적공간이며 부엌인 다푸르(dapur) 그리고 루마 이부와 다푸르를 연결하는 통로공간으로 여자 손님의 접대 공간이기도 한 셀랑(selang)은 사적공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배치 위계상 집의 전면부에는 공적인 기능, 후면부는 사적인 기능이 강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erlogue(2003)은 집과 외부환경에 대한 영역적 구분을 하였는데, 말레이시아 잠비 세베랑(Jambi Seberang, east central Sumatra)에서는 집은 여성의 주 활동공간인 부엌에서 요리, 사교적인 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통해 집은 여성의 공간으로 좀 더 가정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며,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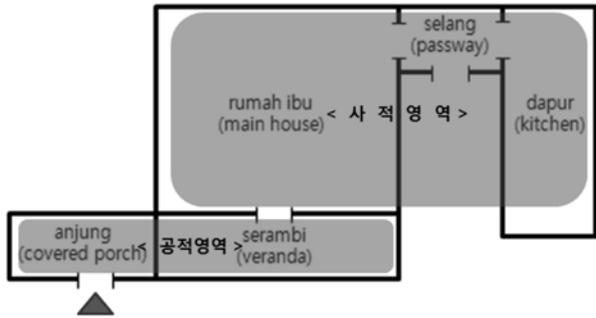


그림 17. 말레이시아 주택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의 공공공간이 남성적인 공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롱하우스와 같이 공동주거의 형식을 가진 마을에서 영역의 분류는 마을단위 내에서 공적공간인 족장의 집 (head-house) 및 커뮤니티공간과 사적공간인 단위주호의 사례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르네오(Borneo)에서는 2차 대전까지 가장 보편적인 주거유형으로 롱하우스(longhouse)가 있다. 롱하우스는 각단위주호가 복도로 연결된 긴 공동주거유형을 말하는데, 각 단위 주호는 동일한 높이에 일렬(single row) 또는 다열(multiple row)로 정렬된 선형 구조로 말레이시아 도서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중앙 베트남에서도 발견되는 형태이다. Schefold(2003)의 연구에 따르면 각 단위주호는 독립된 화로를 가지는데, 초기에는 단위주호 사이에 벽과 같은 공간구분 장치 없이 화로의 존재만으로도 단위주호의 영역을 한정하였다고 한다. 이때 베란다, 홀, 복도와 같은 공적공간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며, 농사와 제례의식을 위한 공간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곳이며, 단위주호는 사적인 공간으로 명확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는 ‘동선’이라는 독자적인 문명,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안 공통언어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부 지역적으로 민족, 역사, 종교에 따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속주거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관점들을 종합하여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을 기후론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토속주거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목조가구식 구조인 고상식주거의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주거의 주요 형태요소 즉 지붕, 벽체, 바닥, 기초 등의 발전과정에서도 통풍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안들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은 사회적 지위 및 종교적 사상을 반영하는 상징적 실체이며, 이러한 증거들은

매우 중요한 조형적 요소인 거대한 안장형 지붕과 화려한 박공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주택은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며, 주택의 각 요소가 신체부위를 상징하며, 집을 짓는 과정 또한 신성한 종교행위에 기준한다. 주택 내부 공간에서도 성별 및 공적/사적 영역성이 존재하여 사회적 위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주택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인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초기단계의 연구로써 문헌연구를 근거로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실증적 토속주거에 대한 연구를 보완한다면 더욱 신뢰성 높은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박장식 (2000). 동남아시아 지역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비. 동남아시아 연구, 한국동남아학회, 10, 239-240.
2. 윤복자 (2000). 세계의 주거문화. 서울: 신광출판사.
3. 주서령·고영은 (2008). 말레이시아 근대주거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1 춘계), 151-155.
4. 주서령·김민경 (2009). 동남아시아 전통주거 형태와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 추계), 55-58.
5.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6. Ariffin, S. I. (2001). *Order in Traditional Malay House form*. Oxford Brookes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7. Brunskill R. W. (2000). *Illustrated Handbook of Vernacular Architecture*. Faber&Faber.
8. Carl, M. (2005). Thinking re-vernacular building. *Design Issues*, 21(1), 32-40.
9. Chaichongrak, R. (2002). *The Thai House: History And Evolution*. Weatherhill.
10. Chen, V. F. (2007).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05: Architecture*. Didier Millet.
11. Dumarcçay, J. (1987). *The Hou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2. Ju, S. R. & Omar, S. & Ko, Y. E. (2009).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lay House in the Kampong Baharu (Kuala Lumpur)*. GEST (Green Tech, Eco Life &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the Cities of Tomorrow).
13. Kerlogue, F. (2003). Malay meanings and metaphors in the Jambi Seberang house. In Sparkes, S. & Howell, S. (Eds.). *The House in Southeast Asia*. Routledge Curzon.
14. Lim, J. Y. (1987). *The Malay House*. Institute Masyarakat.
15. Marcel, V. (2004). A Family Affair: The Construction of Vernacular Minankabau Houses.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32(92), 100-118.
16. Manguin, P. (1990). Shipshape Societies: Boat Symbolism and Political Systems in Insular Southeast Asia. In Marr, D. & Milner, A. (Eds.) *Southeast Asia in the 9th to 14th Centurie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87-214.
17. Oliver, P. (Eds.) (1997). *The encyclopaedia of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Oliver, P. (2006). *Built to Meet Needs: Cultural Issues in Vernacular Architecture*. Amsterdam: Architectural Press.

19.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20. Reid, A. (1980). The structure of Cities in South-east Asia, 15th to 17th Centurie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2), 235-250.
 21. Schefold, R. & Domenig, G. & Nas, P. (Eds.) (2003). *Indonesian houses*. KITLV Press Leiden.
 22. Sparkes, S. & Howell, S. (Eds.) (2003). *The House in Southeast Asia*. Routledge Curzon.
 23. Vroklage, B.A.G. (1936). Das Schiff in den Megalithkulturen Sudostasiens und der Sudsee (The Ship in the Megalithic Cultures of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Seas), *Anthropos*, (31), 712-757. 재인용.
 24. Waterson, R. (1990). *The Living House*. Oxford University Press.
 25. Waterson, R. (1997). A Toraja Pilgrimage: The Life of Fritz Basiang,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29(83), 5-50
 26. Widodo, J. (2004). *The Boat and The City*. Marshall Cavendish Academic.
 27. 두산 엔싸이버 백과사전. www.encyber.com.
- 접수일(2010. 7. 23)
수정일(1차: 2010. 10. 11)
게재확정일자(2010. 11. 26)